

연금 시장 리뷰 **50**호

경제현안

- 동향 :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 이슈 : 2012년 산업 경제의 5대 특징

퇴직연금

- 동향 : 사적연금시장의 급성장
- 이슈 : 퇴직연금 활성화를 통한 퇴직소득 확보
- 퇴직연금통계 (2011년 9월 현재)

세심록



본 자료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위해 작성한 현대증권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발행하는 보고서로 퇴직연금 관련 이슈 및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향 :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 실물 동향: 10월 실업률이 2.9%로 200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

-지난 11월 9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0월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2.9%로 2002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2%대로 하락

- 취업자가 2,467.3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0.1만명 증가하면서 고용률도 59.9%로 0.5%p 상승
- 반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6.7%로 여전히 높았고 비경제활동인구도 가사 및 쉬었음 등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4.9만명이 늘어남

-그러나, 실업률은 낮은 수준이나 고용율도 함께 낮아 고용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체감 고용은 여전히 나빠 실업률 보조지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금융 동향: 이탈리아 등 주요국가로의 위기 확대 가능성으로 국내 금융시장도 약세

-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구제금융 요청이 필요하다고 평가되는 7%대로 치솟으면서 유로존 위기가 주요국가로 재차 확대될 가능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은 하락세를 보임

- 이탈리아, 스페인으로의 위기 확산 가능성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되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1월 4일 3.43%에서 18일 현재 3.37%로 0.06%p 떨어짐
- 원/달러 환율은 금융시장 불안으로 혼조세를 지속하였으나 11월 4일 1,114.0에서 18일 현재 1,138.3원으로 상승
- 한편, 코스피 지수는 11월 4일 현재 1928.4p에서 18일 현재 1,839.8p로 88.6p 급락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09	2010	2011					
				1/4	2/4	2/4	10월	11월4일	11월18일
실물 지표	GDP성장률(%)	0.3	6.2	4.2	3.4	3.4	-	-	
	산업생산(%)	-0.1	16.2	10.6	7.2	5.1	-	-	
	소비자물가(%)	2.8	2.9	4.5	4.2	4.8	3.9	-	
	실업률(%)	3.6	3.7	4.2	3.4	3.1	2.9	-	
	경상수지(억달러)	327.9	282.1	26.1	54.9	71.7	-	-	
금융 지표	국고채3년물(%)	4.04	3.72	3.80	3.68	3.60	3.47	3.43	3.37
	원/달러(원)	1,276.4	1,156.0	1,119.8	1,083.2	1,085.1	1,150.3	1,114.0	1,137.5
	코스피지수(P)	1,682.8	2,051.0	2,106.7	2,100.7	1,769.6	1,909.0	1,928.4	1,839.2

주: 실물지표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이고, 국고채 3년물 금리와 원/달러 환율은 기간 중 평균 값이며 코스피 지수는 기간말 자료임.

□ 이슈 : 2012년 산업 경제의 5대 특징

○ 2012년 주요 산업별 경기 국면

(호황 유지 산업) 상대적으로 OECD 수출 비중이 낮은 석유화학산업은 2011년에 이어 호황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하강 산업) 세계 경제 성장 둔화의 영향으로 기계, 철강, 자동차 등의 산업은 2011년의 호황 국면을 마치고 경기 하강 국면으로의 진입이 전망된다.

(회복 지속 산업) 개도국 중심의 수출 성장세 등으로 해운업 경기는 회복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후방 산업인 조선업 경기도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황 침체 산업) 건설업은 2012년에도 시장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면서 불황 국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IT 산업이 반도체, 패널 부문 등의 부진으로 새롭게 불황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12년 산업 경제의 특징

2012년 국내 산업 경제는 첫째, 전반적인 산업 경기 둔화 속에 연중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이 예상된다. 최근 산업 지표들을 살펴보면 생산증가율이 빠르게 둔화되고 재고 및 출하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어 2011년 하반기 내 경기 둔화 국면으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2012년의 경우에는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더 증폭될 것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기 때문에 2012년 전반적인 산업 경기는 2011년에 비해 악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12년 하반기에 들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강해지는 않지만 침체를 탈피할 조짐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일부 산업을 중심으로 국내 산업 경기가 회복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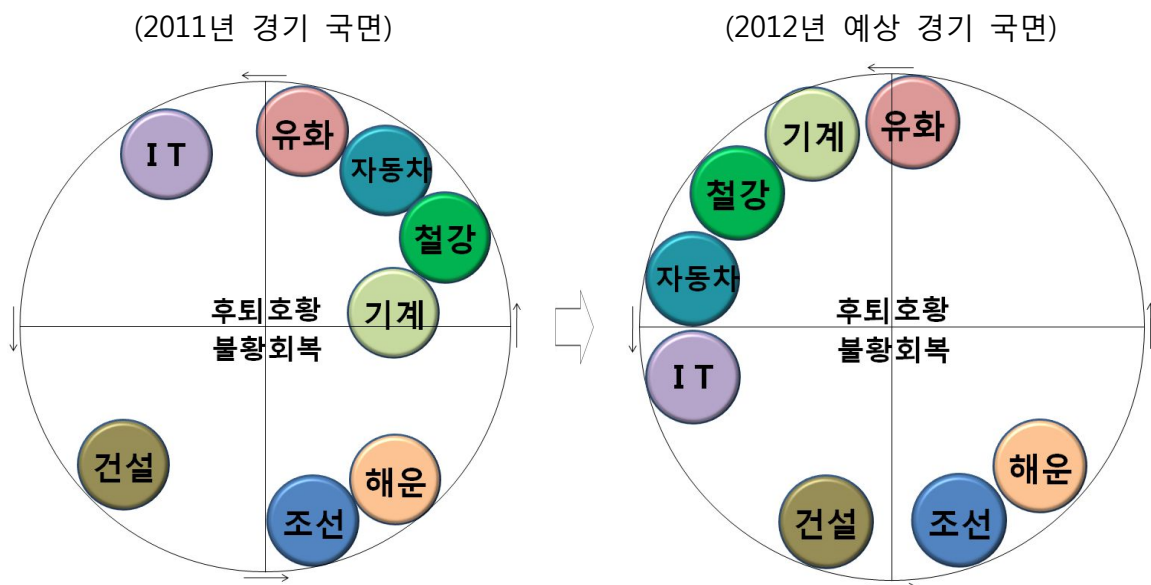
둘째, 수출 경기 하강 속에서도 세계 시장점유율 제고의 계기도 될 수 있다. IMF의 전망에서 보듯이 2012년 세계의 경제성장률과 교역량증가율은 2011년에 비해 큰 폭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따라 국내 주력 수출 산업들의 수출 경기의 하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엔화나 위안화에 대한 원화 가치의 상대적 고평가, 세계 경제 부진에 따른 중저가 고품질 제품의 선호도 급증 등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이다.

셋째, 주력 산업의 신흥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의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개도국은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의 주력 시장인 중국 경제의 경우 성장률은 둔화되겠지만 여전히 9%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의 신흥국 시장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흥국 시장 비중이 높은 업종의 경우 수출 경기가 급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선진국 시장 비중이 14%에 불과한 화학산업의 경우 2012년에도 호황 국면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경제의 구매력 위축으로 내수 산업이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2년 소비, 투자 부문의 급격한 위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환율 불안, 원자재가 상승, 고용 시장 개선 미흡, 가계 부채 문제 잠복 등으로 실질 구매력이 높아지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내수 산업이 경기 하강세를 완화시켜주는 경제적 안전판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다섯째, IT 산업은 해외 및 국내 시장 침체의 이중고에 직면할 우려가 높다. 국내 총수출은 높은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으나 IT 수출은 7월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2012년에도 세계 경제 성장 둔화의 영향으로 거시적인 경기 변동에 민감도가 높은 IT 수출이 불황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최근 제조업 전체의 내수 출하 증감률 하락 속도보다 IT산업의 내수 출하 증감률 하락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향후 IT 내수 시장마저도 침체되어 IT 산업은 수출과 내수 시장의 동반 침체라는 이중고에 직면할 것으로 판단된다.

< 주요 산업의 경기 국면 >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연구위원(02-2072-6235, juwon@hri.co.kr)

□ 동향 : 사적연금시장의 급성장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요약)

○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후의 생활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크게 증가

-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사적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 시장의 최근 추세를 보면, 퇴직연금시장은 매년 100% 이상, 개인연금시장은 매년 평균 15%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시현

< 3층 보장체계에 따른 우리나라 연금시장 >

(단위 : 십억원, %)

구분	책임주체	수단	적립금 규모(전년 대비 증가율)		
			'08년	'09년	'10년
공적연금	국가	국민연금2)	235,425 (-)	277,642 (17.9)	323,991 (16.7)
사적연금	기업(개인)	퇴직보험· 퇴직신탁	27,096 (-)	23,355 (△13.8)	16,001 (△31.5)
		퇴직연금	6,612 (-)	14,025 (112.1)	29,147 (107.8)
	개인	개인연금 (세제적격3))	46,277 (-)	51,919 (12.2)	59,614 (14.8)
		개인연금 (기타4))	70,962 (-)	83,869 (18.2)	98,380 (17.3)

자료 : <http://www.fss.or.kr>

주 : 1)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제외

2) 국민연금관리공단 월별 기금운용현황 인용

3)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에 의한 개인연금저축 및 제86조의2에 의한 연금저축

4) 보험사의 변액연금, 연금보험 및 은행의 노후생활연금신탁, 신노후생활연금신탁

○ 또한, 금년부터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제도변화 등이 예상됨에 따라 사적연금의 증가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퇴직연금) '10 연말 퇴직보험·신탁의 효력 만료,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급여설정 의무화('10.12.1 시행)와 더불어

- (개인연금)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300万→400万)에 따른 세제적격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높은 성장세가 예상

□ 이슈 : 퇴직연금 활성화를 통한 퇴직소득 확보

대다수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수명의 연장과 저출산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에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나라 인구의 약 40%가 고령 인구로 채워질 것이다. 고령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커다란 재앙이 될 것이다. 따라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더불어 사적연금의 핵심인 퇴직연금의 활성화는 고령인구의 퇴직소득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벌써 수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여러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퇴직일시금 수급 구조이며, DB 형 및 원리금보장형 상품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결과 적립금이 연금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자산운용이 단기화되는 등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또한 퇴직연금 제도가 기존 퇴직금 제도와 병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퇴직금 제도와 차별성이 없는 퇴직연금 제도로의 전환에 장애가 되고 있다.

퇴직연금 제도가 활성화되고, 퇴직소득이 원활하게 축적되기 위해서는 우선 적립금의 연금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와 동시에 퇴직일시금에 대한 급여비례공제율을 축소해야 한다. 이는 연금화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과 동시에 퇴직일시금에 대한 역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비보험권 금융기관들의 종신연금 대응방안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현재 적립금 연금화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연금화로 인한 혜택이 금융권역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즉, 종신연금을 제공해주는 보험사들에 비해 종신연금이 없는 비보험 금융기관들이 적립금의 연금화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종신연금과 함께 연금의 분할지급 방식이나 확정연금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비보험 금융기관들은 보험사와의 제휴를 통해 지급보증 기간을 넘는 부분만 종신연금으로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적립금의 중도소진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개정 근퇴법은 퇴직연금 가입자로 하여금 퇴직시 퇴직급여를 개인퇴직계정(IRP)에 이전토록 하고 있으나, 이전한 자산을 인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약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중도 소진이 가능하다.

셋째,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연금 제도로의 이행을 진전시켜야 한다. 현행 근퇴법은 기존 사업장들이 퇴직급여를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상 퇴직금과 퇴직연금 간 차별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들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유인이 약하다.

넷째, 연금 기여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아직 미약한 바, 이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납입금과 소득공제 한도를 늘려주는 등 제도의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DC 형의 활성화가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산운용규제의 완화와 더불어 국내 펀드시장의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I. 고령화 시대와 퇴직자산 축적의 중요성

○ 심화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

-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2007년 기준 79.4세이며, 통계청 추정에 의하면 2050년에는 83.3세에 이를 전망
 - 상대적으로 수명이 긴 여성, 고소득자, 도시생활자 등의 경우 많은 사람들의 수명이 90세를 넘어서고, 100세에 도달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생겨날 것으로 예상
- 이와 같은 수명 연장은 저출산과 더불어 인구구조의 고령화라는 문제점을 야기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2050년에는 고령인구의 비율이 전체인구의 38.2%에 달해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전망

○ 퇴직자산 축적의 중요성과 퇴직연금의 역할

- 개인들이 은퇴 이후의 생활에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자산을 축적하지 않으면 국가와 개인 모두 심각한 문제에 직면
 - 민간부문에서 퇴직자산을 충분히 축적하지 않을 경우 국가 차원의 공적 연금이 그 역할을 대체해야 하는데,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상태로는 쉽지 않은 문제이며, 이를 국민연금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정이 투입되어야 함
 - 개인들은 충분한 퇴직자산을 축적하지 못할 경우 퇴직 후의 30~40년에 이르는 생활에 대한 대책이 없게 됨
- 따라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보조수단으로서 퇴직연금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됨

II.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 현황

○ 가입자 및 도입사업장 현황

- 2011년 6월말 현재 전체 상용근로자의 31.4%인 총 2,861,064명이 가입하고 있으며, 퇴직연금 유형별로는 DB형이 주를 이루고 있음
 - DB형: 198만명, 69.4%, DC형: 80만명, 28.0%, IRA형은 미약
- 2011년 6월말 현재 사업장의 7.5%인 112,861개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였음
 - 사업장 규모별로는 500인 이상 사업장의 도입률이 57.2%로 가장 높고 10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률은 4.9%로 가장 낮음
 - 퇴직연금 유형별로는 DC형 44,852개소(39.7%), DB형 40,857개소(36.2%), IRA 특례형 25,039개소(22.2%)
 - 대형사업장은 DB형을 선호하고, 중소형 사업장은 DC형 또는 IRA 특례형 선호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현황(2011년 6월말)>

(단위: 개소, %)

구분	10인미만	10 ~ 29인	30 ~ 99인	100 ~ 299인	300 ~ 499인	500인이상
①도입 사업장 수	61,996	31,992	14,081	3,593	558	641
②전체 사업장 수	1,277,326	167,033	50,007	10,309	1,363	1,120
비율(①/②)	(4.9)	(19.2)	(28.2)	(34.9)	(40.9)	(57.2)

자료: 고용노동부

○ 적립금 현황

- 2011년 6월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36조 5,904 억원으로 추산됨
 - DB형 적립금이 전체의 72.6%인 26조 5,518 억원이며, 은행권의 적립금이 전체의 48.5%인 17조 7,437 억원을 차지하고 있음
-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중 원리금보장형 상품 비중이 91.1%(33조 3,480 억원)이며, 그 중 예금상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예금 52.2%, 보험 32.7%, ELS 5.9%
 - 퇴직연금 적립금은 DB형의 96.5%, DC형의 71.7%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구성돼 안정성 위주로 운용되고 있음
 - 보험권의 경우 원리금보장형 상품 위주의 운용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생보 96.2%, 손보 98.1%
 - 증권사의 경우 원리금보장형의 비중이 75.1%에 이르나 타 권역에 비해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이 14.1%로 상대적으로 높음

<제도유형별 적립금 운용현황 및 비중(2011년 6월말)>

(단위: 억원, %)

구분	DB형		DC형		기업형 IRA		개인형 IRA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원리금보장형	256,223	(96.5)	46,085	(71.7)	5,123	(88.4)	26,050	(85.9)
실적배당형	4,085	(1.5)	16,755	(26.1)	645	(11.1)	2,454	(8.1)
기타	5,211	(2.0)	1,430	(2.2)	29	(0.5)	1,816	(6.0)
합계	265,518	(100.0)	64,270	(100.0)	5,796	(100.0)	30,320	(100.0)

자료: 금융감독원

<권역별 적립금 운용현황 및 비중(2011년 6월말)>

(단위: 억원, %)

구분	은행		증권		생보		손보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원리금보장형	165,546	(93.3)	49,544	(75.1)	91,131	(96.2)	27,234	(98.1)
실적배당형	11,067	(6.2)	9,308	(14.1)	3,044	(3.2)	520	(1.9)
기타	824	(0.5)	7,099	(10.8)	551	(0.6)	9	(0.0)
합계	177,437	(100.0)	65,951	(100.0)	94,726	(100.0)	27,763	100.0

자료: 금융감독원

Ⅲ.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특징 및 문제점

○ 퇴직 일시금 수급 구조

- 현행 퇴직연금은 퇴직 시 일시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일시금을 연금화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함
 - DB 형 연금이 일시금을 기본으로 하고, 이를 연금화하는 방식은 통상적으로 DB 형 연금이 연금을 기본으로 하고 근로자가 선택시에 일시금으로 환산하는 방식과는 매우 다른 의미를 가짐
 - 현행 DB 형 퇴직연금이 연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자들은 퇴직 이후 투자에 따른 위험, 장수에 따른 위험을 스스로 부담

○ DB 형 및 원리금보장형 상품 위주의 시장 구조

- 퇴직연금 도입 초기부터 현재까지 DB 형 퇴직연금이 주를 이루으로써 미국 등 기업연금이 발전한 나라와 상당히 다른 구조로 성장 중임
 - 2011년 6월 기준 DB 형 퇴직연금은 가입자 수의 69.4%, 적립금의 72.6%를 차지
 - 기업연금을 먼저 도입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 DC 형의 비중이 DB 형을 압도하거나 증가하고 있음
- 원리금보장형 상품중심의 자산운용 경향을 보임에 따라 외국의 기업연금 자산운용 방식에 비해 매우 보수적임
 - 퇴직연금 적립금은 2011년 6월 기준 DB 형의 96.5%, DC 형의 71.7%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구성돼 안정성 위주로 운용
 - 보수적 자산운용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은 없으나 수익률이 직접적으로 퇴직급여를 결정하는 구조 하에서 보수적인 자산운용은 낮은 퇴직급여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음

○ **단기적 자산운용**

- 가입자들이 원리금 보장상품을 선호하다보니,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1년 이하 단기계약에 치중하는 결과를 야기
 - 2011년 6월말 기준, 1년 이하 단기계약이 전체 적립금 36조 5,904억원의 78.7%이며, 3년 초과 장기계약은 3.8%임
 - 계약기간이 길수록 고금리 제시나 원리금 보장이 어려워 질 것임

○ **퇴직금제도와 병존**

- 퇴직연금이 기존의 퇴직금을 대체하지 않고 동시에 도입되어 퇴직금제도가 퇴직연금 확대에 장애가 되고 있음
 - DB형 퇴직연금이 퇴직 이후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퇴직금제도가 퇴직연금 도입 형태 자체를 규정한 측면도 있음
 -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제도 자체가 퇴직금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전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음
 - 퇴직연금으로 전환 시 저항을 줄이는 효과도 있음
 - 부실가능성이 낮은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없음

IV. 우리나라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 과제

○ **퇴직일시금의 연금화 유도**

- 연금소득과 퇴직일시금에 대한 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연금소득에 대해 연간 9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라 상한을 추가적으로 높여야 할 필요(2005년 600만원 → 900만원으로 한도 상향 조정)
 - 퇴직일시금에 적용되는 급여비례공제율(2010년까지 40%)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퇴직일시금 수급에 대한 유인체계를 줄여나가야 함
 - 퇴직금제도 하에서 일시금을 받아 퇴직하는 근로자는 개인형 IRA(개정 IRP)를 통하여 연금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비보험권 금융기관의 종신연금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퇴직일시금을 연금화 하면 적립금이 금융기관 내에 오래 머물지만 금융권역별로 그 수혜 대상자가 다름에 따라 반대의견에 직면
 - 근로자들이 종신연금을 선택할 경우 비보험사들은 자체적으로 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퇴직일시금의 연금화 유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
 - 따라서 종신연금과 함께 분할지급 방식, 확정연금 방식도 고려

- 종신연금이 장수위험에 대한 대비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나, 종신연금은 조기사망 우려가 있어 수요가 낮을 수 있음
- 현재 판매되고 있는 종신연금의 경우도 대부분 일정 기간 지급을 보증하고 있음(예를 들어 20년 지급 보증)
- 최단 지급기간은 국민연금 수급시 까지로 설정함
- 현행 퇴직금제도의 일시금 방식에도 연금화 방식을 적용함
- 현행 퇴직금제도의 일시금 결정 방식은 퇴직연금의 DB형과 동일하므로 지급방식을 일치시킬 수 있을 것임
- 비보험 금융기관들은 보험사와 제휴를 통해 지급보증 기간을 넘는 부분만 종신연금 제공
- 예를 들어 55세에 퇴직한 근로자가 20년 지급이 보증된 종신연금을 선택하면 75세부터 시작되는 종신연금을 보험사로부터 구입함

○ 적립금의 중도 소진 방지

- 2011년 근퇴법 개정을 통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퇴직금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준하는 엄격한 제한 필요
 - 퇴직연금 중도 인출사유: ①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② 가입자 등의 6개월 이상 요양, ③ 천재·사변 등으로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 근로자의 재직시 중간정산 뿐 아니라 이직시에 퇴직자산이 다른 용도로 소진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개정 근퇴법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시 퇴직급여를 개인퇴직계정(IRP: Individual Retirement Plan)에 이전하도록 하고 있음
 - 근로자의 이직시 퇴직자산의 이전 가능성을 높이려는 IRA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만, 이전된 자산을 인출하는 것은 제한할 방법이 없음

○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의 이행 촉진

- 현행 법령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퇴직금의 신규가입도 허용하고 있어 퇴직연금 확대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퇴직연금을 도입하기 위한 동의절차가 엄격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현재의 상태(퇴직금제)가 최선의 방안으로 인식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요구
 -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을 도입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문제
- 향후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여 퇴직연금 확대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 기존 근로자 퇴직, 중간정산 등을 통해 퇴직금제의 자연 소멸 유도
- 퇴직금제도를 일시에 폐지하면 사용자는 사내유보 퇴직금의 중간정산지급 또는 일시에 퇴직연금 전환을 위한 필요자금 조달 등 부담 발생 예상
- 궁극적으로는 시기를 보아 퇴직연금 가입을 전면 의무화

○ **연금 기여금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와 납입금의 탄력적 조정**

-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계산하고 있는 연금 기여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충
 - 현행 제도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불입액에 대해 연간 400 만원의 소득공제 혜택 제공
 -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개인연금에 대해 연간 240 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퇴직연금 가입에 따른 추가적인 세제혜택은 미미
 - 향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해 소득공제 한도를 600 만원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
 - 다만, 개인연금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개인연금에만 가입할 경우에는 한도를 현행 400 만원 수준으로 유지
- 연령대에 따라 퇴직연금 납입금 및 소득공제액을 탄력적으로 조정
 -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IRA의 납입한도 연 \$5,000 이지만 50 세 이상 근로소득자에게는 \$6,000 까지 추가 납입을 허용하고 있음

○ **DB 형의 사외 최저 적립수준 상향 조정**

- DB 형의 경우 사외 적립의 최저수준을 적정부담금의 6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수급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침
 - 따라서 최저 적립수준을 현행 60%에서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 조정

○ **DC 형 활성화 방안 마련**

- DC 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추가납입분에 대한 대응기여 활성화
 - 기업이 부담하는 법정 기여금 이외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하는 기여금에 대해 기업의 대응기여 활성화 방안 마련: (예) 기업의 대응기여분에 대한 세제혜택 등
- DC 형의 주식형펀드 투자 허용 등 운용규제를 완화하고, 펀드시장 전반의 기반 구축
 - 퇴직연금 등 장기투자에 특화된 자산운용사 육성: (예) 인허가 시 퇴직연금 특화 운용사에 가점 부여 등
 - ETF, 인덱스펀드 등 향후 퇴직연금 자산이 본격 투자할 상품 육성
 -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매입할 수 있는 펀드의 규모 대형화
 - 펀드의 보수 및 수수료 등 투자비용의 지속적인 인하 노력

자본시장연구원 김재철 펀드연금실장, 경제학박사, (02-3771-0663, jckim@kcmi.re.kr)

□ 퇴직연금통계 (2011. 9월 현재)

○ 적립금 규모

- 2011년 9월 말 현재 적립금액은 38 조 1,125 억원으로 전월말(37 조 4,649 억원) 대비 6,476 억원 증가*
- 전년말(29조 1,472억원) 대비 30.8%(8조 9,653억원) 증가
- 전년말 대비 적립금 증가율은 1.7%로 낮은 수준을 시현 하였으나, 연말 시점에는 높은 적립금 증가율이 예상

<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추이 >



자료 : 금융감독원

○ 도입사업장

- 퇴직연금 도입사업장 수는 총 121,584 개소로 전월말(117,327 개소) 대비 3.6% 증가
- 쉐 사업장(1,507,158개소)대비 퇴직연금 도입률**은 8.1%

<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 >

(단위 : 개소, %)

구분	10인 미만	10인~ 29인	30인~ 99인	100인~ 299인	300인~ 499인	500인 이상	합계
(A)도입 사업장수	67,759	33,684	14,759	3,954	658	770	121,584
(B)전체 사업장수	1,277,326	167,033	50,007	10,309	1,363	1,120	1,507,158
도입비율 (A/B,%)	5.3	20.2	29.5	38.4	48.3	68.8	8.1

자료 : 금융감독원

□ 洗心錄

□ 내가 먼저 웃자

에쿠니 가오리는 자신의 저서 《황무지에서 사랑하다》에서 “인간은 꽃이 아닙니다. 왜 꽃이 아닌 돌이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을까요. 갈면 갈수록 아름다워지는 흑요석이나 수정, 다이아몬드에 자신의 모습을 비유해 보지 않을까요”라고 말한다. 가을이 가고 겨울로 접어드는 계절에 공허해질 수 있는 마음을 다잡을 기회이다. 올 한 해도 계획했던 것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나의 길을 가야할 것이다. 가네히라 케노스케의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만담가인 우쓰미 케이코씨.

그의 세 번째 아버지는 이발사이다.

그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내가 웃으면 거울이 웃는다’ 였단다.

우쓰미 씨는 이 말을 좋아해서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나도 나만의 격언을 가지고 있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나 먼저 웃음을 보이는 삶을

살고 싶다고 나 자신을 타이른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전적으로 각자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이다. 오르막길이 있다고 할 때 웃으면서 갈수도 있고 징징거리며 오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뒤의 결과는 당연히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을 때 육체 및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다.

家貧思良妻 國亂思名相 (가빈사양처 국난사명상)

집안이 어려우면 어진 아내가 생각나고, 나라가 혼란하면 훌륭한 재상을 그리게 된다.

- 史記 -